

COMPETITIVE
INTERNET
RELIABLE
BROADBAND
VALUE
LEADERSHIP
INNOVATIVE
HIGH SPEED INTERNET
RELIABLE



미국 뉴올리언즈 'Cable 2002' 전시회

美 케이블 산업 '디지털' 넘어 '양방향'으로

미국 뉴올리언스 모리얼 컨벤션 센터(Morial Convention Center)에서는 지난 5월 5일부터 사흘간 케이블 방송 및 통신 박람회인 「Cable 2002」가 열렸다. 미 NCTA (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 Associations) 주최로 올해로 51번째를 맞는다. 하천타/ 텔레닷컴 취재부 기자 (teleha@krtele.com)

방 송, 통신, 광대역서비스, 장비, 콘텐츠, 소프트웨어, NMS, 빌링 등 케이블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180여 업체가 참가한 이번 행사는 미국의 케이블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편, 디지털케이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로버트 삭스 NCTA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광대역 케이블을 통해 양방향의 오락, 정보, 전화 및 인터넷이 전달되고 있다』며 『광대역은 인터넷 정보 시대의 필수품』이라

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클 파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도 개회식에 참석,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줬다.

올해 160억 달러 투자, 가입자 7,000만 넘어

미국의 케이블 산업은 디지털 방송을 넘어, 양방향 TV의 활성화를 통해 본격적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케이블 방송사들은 이미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화질(HD) 방송 및 VOD(video on demand)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방송사인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 폭스 뉴스 채널, 히스토리 채널 등은 이번 전시회에서 각사의 디지털 방송 콘텐츠들을 HDTV를 통해 선보였다. 케이블TV 가입자의 25%(2001년 기준 1,520만)가 이미 디지털 콘텐츠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은 이달부터 24시간 HDTV 채널을 통해 '디스커버리 HD 극장'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90여개의 신생 디지털 케이블 채널들은 VOD 서비스를 속속 출시, 월 평균 350편씩의 영화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케이블 산업의 발전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해 왔다. 지난 1996년 이후 케이블 업계는 약 6,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이는 가입자당 약 1,000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해마다 투자규모가 늘어 99년도에 106억달러에 이에 2000년도에 124억달러, 지난해에는 143억달러에 달한다. 통신시장이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올해에만도 약 160억달러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케이블 산업의 6,000억 달러 투자의 대부분은 광대역 인프라에 집중 됐다. 덕

분에 미국 전역에 걸쳐 약 7,000만 가정이 보다 발전된 광대역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방향TV’ 부상

광대역 서비스의 기초를 다진 미국 케이블 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로 부상하는 것이 ‘양방향TV’ 서비스와 기술이다.

AT&T는 월드게이트와 제휴로 양방향TV 서비스를 출품했다. 가입자들에게 프로그램과 광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영화와 제품에 관한 주문을 받는 일이 머지 않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방향TV 솔루션 업체인 컴버스, 오픈TV, TV가이드 등은 IPG 전문 솔루션을 선보였다.

디지털 비디오, VOD 등으로 대변되는 광대역 서비스는 PVR(Personal Video Recorders),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 IPG(Interactive Program Guides), TV를 통한 정보검색 서비스 등 양방향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VoIP 서비스도 상용화

선도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연합, 양방향성을 갖추면서 본격적인 ‘통신’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알렌 이사는 『디지털 셋톱박스인 DCT-1000 및 2000 모델에 마이크로소프트 양방향TV 사업부의 PG(Program Guide) 소프트웨어를 탑재,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단순 셋톱박스에 자체 연산 기능을 갖추고 고속 DOCSIS 케이블모뎀까지 통합해 「DCT5100」, 「DCT5200」 등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 가지 장비에서 양방향 HDTV는 물론, IP 텔레포니, 파일 전송, 온라인 게임까지 가능케 하고 있다.



Cable 2002에 참여한 미국 케이블 TV업체 모습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프리의 해결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잠잠해졌다.

케이블 산업의 발달로 케이블모뎀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의 보급도 활기를 띄고 있다. 케이블 모뎀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000년 370만에서 지난해 720만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모건스탠리 보고서는 『올 말 경 8,840만 가정이 유선망을 이용해 광대역 서비스에 접속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케이블 산업의 발달로 기존의 썬더 전화서비스를 제공해온 통신사업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통신서비스를 선했다. VoIP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 AOL 타임워너는 고속데이터서비스에 VoIP 서비스가 번들로 제공되는 「로드 러너」 서비스를 출품했다. 이 서비스는 월 9.95달러로 이미 포틀랜드와 로체스터에서 각각 1,000여 가입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외에 차터커뮤니케이션, 컴캐스트, 인사이트커뮤니케이션 등도 VoIP 서비스를 선보였다.

모토로라 ‘엔드투엔드’ 솔루션 선배

이번 전시회에는 방송 및 통신 솔루션 업체들도 다수 참가했는데, 모토로라 광대역통신사업부는 디지털 방송과 초고속인터넷에 관련된 토털 솔루션을 선보여 모든 관람객의 발길이 한동안씩 머물게 했다. 디지털 방송용 셋톱박스는 물론, 유무선 초고속인터넷용 케이블모뎀, 가입자용 멀티미디어 플랫폼 등 가입자 장비에서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와 함께 디지털 케이블·위성방송 전송시스템 등의 각종 전송장비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는 모습이었다.

런제가 알렌 모토로라 광대역사업부 마케팅 이사는 『양방향TV야말로 본격적인 통신과 방송의 융합 서비스라 할 수 있다』며 『모토로라는 가입자 셋톱박스에서부터 전송 플랫폼까지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통신장비업체인 모토로라 디지털케이블 사업은 컴퓨팅 소프트웨어

국내시장에서도 곧 선빌 듯

모토로라는 이외에 가정용 올인원(All-in-one) 광대역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BMC(Broadband Media Centers) 8000」, 「9000」시리즈와, 디지털 동영상과 음향기기 등을 흡수여터 시스템과 결합한 「DCP(Digital Convergence Platform)500」 등을 선보였다. 이들 가입자용 멀티미디어 장비들은 모토로라의 서비스 사업자용 디지털 전송시스템과 함께 양방향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한편, 모토로라가 출품한 장비의 일부는 국내 시장에서도 곧 선빌 예정이다. 알렌 이사는 『DCT2000 셋톱박스 시리즈는 양방향 기술과 게임, 전자우편, 채팅, VOD, PVR 등의 기술을 채용하면서 DCT2500, DCT2600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 장비들은 이미 한국에도 도입돼 디지털케이블방송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에게 의해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다. **ICRA**